삼화페인트, 공동대표체제 의미는?

김장연 · 윤석영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 … 전자파 차폐도료 특허취득

2002년 눈부신 성과를 통해 페인트시장 3위에 오른 삼화페인트가 김장연 대표와 함께 윤희중 회장의 차남인 윤석영 부사장을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삼화페인트는 꾸준한 기술개발과 영업력을 바탕으로 건축용 도료시장에서 줄곧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플래스틱용 페인트로의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2002년 말, 일본의 Nagashima와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해 2004년에는 1500억원 시장 중 15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또 2003년 페인트부문 예상 매출액은 전년대비 10.6% 증가한 2053억원으로 신규 진출한 북경대표처 활약에 따라 해외사업의 성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2002년에 수주한 PCM 페인트 수출이 2003년에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3년 2월말-3월초에 출범하는 북경대표처는 중국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한 단계적인 투자의 시작으로 해외사업부 구조개편으로 인한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화페인트는 2003년 1월16일 전자파 차폐용 도료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으며 국내 전자파 차폐용 도료와 응용제품 시장규모는 2003년 현재 6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화페인트는 전자산업의 발전 및 금속소재의 플래스틱 소재로의 대체 추세 등을 고려하면 플래스틱용 페인트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능성 페인트의 기술개발 고삐도 늦추지 않을 것이라 방침이다.

특히, 윤석영 부사장의 공동대표 취임으로 경영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회사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황현혜/화학저널 취재기자>

<Chemical Journal 2003/02/13>